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정혜사 주석 혜암 스님



경기도 포천 왕방산 자락의 조그만 포교당인 정혜사(禪慧寺)에 주석하고 계시다. 젊은 시절 춘천 성수고등학교, 부천 소명여고, 동국대 부속중,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병을 얻어 출가,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교육평론집 <조국은 내 사랑>(고려원 펴냄) <사랑의 학교>(나라원)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핀다>(리빙북스)와 교육을 주제로 한 소설 <작은 천사들의 분노>(나라원) <학교는 있다>()를 펴냈다.

혜암스님은 '선지식을 찾아서' 코너의 취재에 손사래를 쳤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당신은 말석도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어쭙잡은 글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게 하며 원고를 건넸다. '심기는 이의 해탈, 사촌(師魂)이 이끈 사울(師律)의 힘'이란 제목이 붙어있었다. 평소 생각했던 교육관과 교사상을 그려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자>

글로 두리번거렸다. 박 선생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답을 알고 있지 못했다.

“혹시 누가 정숙이 둔 주는 학생 없나요?” 당황스러운 끝에 겨우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너무 너무 순진하시다.”
“저 나이에 웬일?”
“우리 형편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시구만.”
곧이어 한 남학생이 빈정대듯이 한마디를 내놓는다.

“선생님요, 돈을 주셨다면 쉽게 내놓겠어요?”
“무슨 뜻이죠?”
“저절로 굴러온 것이라든 황제수인데 누가 그걸 포기하겠나요. 더구나 우리는 항상 용돈이 궁한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가져가도 된다면 너무 한 겁니다. 혹시 주는 사람 있거든 돌려주세요. 지금 곤란하다면...”



사진=박재완 기자

육'이라는 '선의지(善意志)의 전문교육'을 '함께 책임지자'는 교사의 요구는 교사의 근본 마음자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터득한 전문가로서의 교사들이 해야 할 합당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학생의 잘못된 교사 덕분이고 잘못된 것은 '가정', '사회'라는 비열한 공식이 교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면 교사의 정체성은 단순지식만을 주입하는 지배적인 아만(俄慢)의 산물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경제생활을 책임져 주기로 하고, 교사는 그들의 귀한 자녀들을 맡아 사회인성교육에 책임져 주기로 함으로서 교사에게 전문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사회계약적인 관계가 성립된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인간의 도덕적지를 결정하는 것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볼 때 이성적 사회계약상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최소화 내지 전가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달고 자기합리화에 몰입하는 행위는 양심 도태행위이며 도덕적 변별력을 상실한 부도덕한 해법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내뿜할 줄 모르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기합리화를 지저분하게 모색하고 강구하는 책임전가형 인격이 교사의 통념적 본래의지라고 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적 미화의 완성을 추구하는 공교육 본령에 대한 배반이다. 교사가 속마음에서 가정, 사회 탓으로 돌리며 위선자의 길로 일관하겠다는 학생이 배울 도덕성도 그와 같은 위선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활연(豁然)한 모습을 통해 지각변환(地覺變遷)이 있기를 바란다면 나의 잘못된 판단일까? 아무튼 박 선생의 얘기를 계속해야겠다.

지금 학생들 앞에 고통스러운 그에게는 돈을 도둑맞은 학생을 동정함이 우선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그 돈은 얼마이든 당장에 대신하여도 될 것이었다.(그는 그날 정숙이에게 10만원을 주었다. 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뢰감이었다.) 그러나 도둑질한 제자의 '길 잃은 양심'은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무거운 현실에 직면하여 온몸으로 떨고 있는 것이었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희망찬 준비라고 할 때 돈을 훔친 학생에게 질게 드리워진 어둠의 장래에 대한 처연한 느낌과 선도 책임능력의 한계점을 느낀 당혹감이었다.

드디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서 검은 환영(幻影)이 난현한 공포가 되어 그를 일순간에 덮쳐왔다. 급작스럽게 뒤친 위압감이 떨며 얼떨결에 마음속에서 외쳐본다.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된 가정교육 탓도 있고 나쁜 길 많이 보여주는 사회환경 탓도 있어. 난 아니야!"

공포를 벗어나려 내면의 갈등에 부딪쳐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성(魔聲)은 온몸이 소스라치게 뇌리를 휩쓸듯 밀려든다.

"학교라는 곳이 뭐하는 곳인데? 좋은 사람 만들어

방, 그리고 은 몸을 살살이 수색하라!

이렇게 가방을 뒤지고 몸 구석구석을 더듬어 돈을 찾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다. 몸수색을 당하던 우리들은 모두 불쾌했다. 결국 적발된 학우는 그 후 학교에선 볼 수 없었고.

학생들을 믿지 못해 그렇게 다짜고짜 몸수색을 집행했던 그 추억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순진한 마음에 개운치 않는 상처만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서로 믿을게 못 된다는 것만 가르쳤던 것이었다. 그런 모습은 교직을 독재자의 권위로 전락케 했고 범죄를 좇아가는 형사로 변질케 했으며 결국은 타율도덕형의 인성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만 얻었을 뿐이었다. 성숙한 민주주의식(자율도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은 전문직자이던 교사에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다고 당장 돈을 훔쳐간 학생을 찾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지 않겠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급박해졌다. 눈을 감은 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마치 교실이 법당인 듯, 학생들이 부처인 듯하였을까? 그랬을 것이다. 그는 불제자였기에 분명히 그랬을 것이

다.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불성의 삶이 되기를 오로지 갈망해왔던 그였다. 학생들은 조용해졌고 놀라는 눈으로 그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잠시 교사의 전문성 진위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문성은 일반성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책임이 따르는 성질의 것이며, 그 책임의 한계인 평가(최도)기준을 전문분야가 할 수 있는 최대반경 지점에 매김으로서 전문성의 본질적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특히 교직은 '인성교육'에 있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어지는 전문직이다. 이에 교사는 일반성과 다른 적극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가정'의 학부모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상의 역할 수행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에 한 시가 바쁜 사람들과 보아야 하며, '일반사회'라고 하는 삶의 현장 역시 인성교육의 비전문성 현상 자체이며 이미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오염이 녹아있는,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사회'를 향해 '인성교

말씀으로 위장한 교사에 가슴으로 뉘우칠 제자 없어

교실은 마음 닦는 법당이요, 학생은 감동 주는 부처

가을에 접어든 어느 날. 희망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종례시간이었다. 돌연히 난처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선생님! 제 돈이 없어졌어요. 제 돈 10만원이 없어졌어요.”

정숙이가 손을 들고 안절부절하였다.

학급학생들의 시선이 울상이 된 그녀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숙이의 놀라는 표정을 바라보는 박 선생. 그는 학급담임을 처음 맡은 초년교사였다.

“무슨 돈이었어요?”

이렇게 묻는 박 선생은 곧 자신의 태도에 회의를 느꼈다. 무슨 돈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회의의 수평으로 끈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박 선생이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는 의심을 먼저 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 서였다. 대부분 그런 상황의 끝은 학생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급적 문제의 근본부터 짚어보려고 한 것이었다.

“오늘 옷을 찾은 문인데, 어떡해요.”

정숙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얼

박 선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말씀을 얼버무리려 했다. 이때 돈을 잃어버린 정숙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빈지갑을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종례시간 전까지 분명히 있었어요, 잠시 교실 밖엔 나갔다가 사이에 없어졌다고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구요. 도둑맞은 거라구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제 지갑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박 선생은 더욱 난처해진 표정으로 학생들을 둘러 보았다.

“이런 일이 평소에도 자주 생기나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난색이 된 박 선생은 대답하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돈을 잃어버린 정숙이는 드디어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는 오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모두 다른 데다 쓰고 핑계를 댄다고 야단을 치실 게 분명해요.”

박 선생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보이는 현실이 두려웠던 것일까? 자신의 고교시절이 언뜻 떠올랐다. 그때엔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문초하였다.

“모두 일어나 손을 머리위에 얹고 책상 옆으로 정렬하라. 그리고 분단장들은 뒤에서부터 책상 속, 가

희담석
www.jawonet.co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 희담석 방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보급형 정가 45,000원 (색상: 황토색, 쥐색)
고급신형 정가 50,000원 (색상: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주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정가 : 25,000원 (색상: 황토색)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땀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합장주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과 팔목의 빠른회전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라면

희담석의 생명의 에너지를 목걸이(팔찌, 합장주)에 담았습니다. 목과 팔목이 빠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염주목걸이 정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정가 35,000원
◦ 할인가 30,000원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8 골짜기길 9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